



특집 _ 재외동포 대학생 200여명 모국서 '역사 문화 체험' "할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정 실감했어요"

화제 _ "모국 발전상·역사·문화 체험해 한민족 유대감 커졌어요!" 재중동포 청소년 152명 모국 방문 남산 한옥마을 체험, '도전 골든벨' 출연



정림사지 5층 석탑 조형미 뛰어난 백제시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제9호)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산 8군데를 한데 묶은 '백제 역사유적 지구'가 7월 4일 한국으로서는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등재가 확정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곳, 부여의 관북리 유적·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定林寺址)와 부여 나성의 4곳, 그리고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곳을 합친 8곳이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정림사 터에 세워져 있는 석탑으로, 좁고 낮은 1단의 기단(基壇)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모습이다. 신라와의 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뜻의 글귀를 이 탑에 남겨 놓아, 한때는 '평제탑'이라고 잘못 불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기단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에 기둥 돌을 끼워 놓았고, 탑신부의 각 층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을 세워 놓았는데,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를 볼록하게 표현하는 목조건물의 배흘림 기법을 이용했다. 얇고 넓은 지붕돌은 처마의 네 귀퉁이에서 부드럽게 들려 단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좁고 낮은 1단의 기단과 배흘림기둥, 얇고 넓은 지붕돌의 형태 등은 목조건물의 형식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여주며, 전체의 형태가 매우 장중하고 아름답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호)과 함께 2기만 남아 있는 백제시대의 석탑이라는 점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세련되고 정제된 조형미를 통해 격조 높은 기품을 풍기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창**

부여 정림사지 전경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 대학생 초청 연수'는 세계 각국의 한인 청소년이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코리안으로서 거주국과 모국을 잇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있다.

- 02** 한국의 열 정림사지 5층 석탑
조형미 뛰어난 백제시대 석탑
- 04** 특집 재외동포 대학생 200여명 모국서 '역사 문화 체험' "할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정 실감했어요"
- 06** 동포 소식 뉴욕 한인 예술가들, 태극기 주제 작품 전시회 외
- 09** 동포 캘린더 한인 1.5세 피터 권, 워싱턴 주 시택 시의원 선거 출마 외
- 10** 기획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으로 전기 맞은 쿠바의 한인사회 광복 운동 후원한 쿠바 한인들
- 12** 글로벌 코리안 한국어 세계화에 앞장서는 최경미 한·미헤리티지교육재단 이사장 팬암대회 폐회식 무대 연출 맡은 캐나다 한인 장희용 씨 러시아의 대표적 동포 작가 아나톨리 김
- 14** 지구촌 통신원 급변하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차세대와 기업인 창업에 적극적인 2세대가 조선족 중심으로 부상
- 16** 화제 "모국 발전상·역사·문화 체험해 한민족 유대감 커졌어요!" 재중동포 청소년 152명 모국 방문 남산 한옥마을 체험, '도전 골든벨' 출연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국내 재산 반출 자금출처확인서 첨부해 신고하면 끝
- 18** 한민족 공감 열차로 러시아-독일 횡단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통일 성지' 베를린서 대장정 마무리
- 19** 동포의 창 고국인 듯 고국 아닌 고국 같은... 한국 김탁 _ 요녕신문 기자 "가족처럼 친근하고 포근했다" 김란화 _ 해란강닷컴 기자
- 20** 동포문학 재스민 쌀과 된장찌개 정동철 _ 호주 _ 2013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가작
- 22** OKF 뉴스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 역할' 포럼 개최 외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고유의 입맛 살린 전통의 맛 병천 순대 영양 많고 저렴한 서민 음식
- 26** 재단 공지



재외동포 대학생 200여 명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과 대구, 대전, 목포, 울산, 원주 등 5개 지방에서 모국을 체험했다.

재외동포 대학생 200여명 모국서 ‘역사 문화 체험’ “할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민족의 정 실감했어요”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동포 대학생 200여 명이 대한민국의 사회·역사·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기 위해 모국을 찾았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재외동포 대학생 초청 연수는 세계 각국의 한인 청소년이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사로, 쌍방향의 문화적·직접적 체험학습을 통해 국내외 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7월 28일 개회식에서 참가자들을 환영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민족 글로벌 리더로 공공외교를 펼치는 여러분은 민간 외교관이자 든든한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자랑스러운 글로벌 코리안으로 성장해 한인 사회와 모국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8월 4일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연수를 진행한 YMCA의 송진호 대외협력처장은 “참가자들은 농사 돕기, 마을 벽화 그리기, 한국 음식

체험, 한국어 배우기, 사물놀이·판소리·탈춤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키웠다”고 소개했다.

“동포 차세대는 거주국에 대한민국 알리는 ‘홍보대사’”

29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2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공공외교 포럼’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국 연수에 들어갔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거주국과 모국에서 한민족의 위상을 드높일 인재”라며 “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신뢰 구축에 앞장서는 공공외교의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포럼을 열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고,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의 조언과 강연을 들었다.

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한국을 배우려고 한글학교와 한국문화원을 방문한 사례, 복분자 등 전통술과 술 문화를 통한 한국 알리기 이야기 등이 인상 깊었다”면서 “모국을 알고자 노력하고 이를 거주국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홍보대사”라고 격려했다.

포럼을 마친 후 이들은 ‘상상하라 당신만의 대한민국’ (Imagine, Your KOREA)이란 주제로 대구, 대전, 목포, 울산, 원주 등 5개 지방으로 나눠 모국 체험에 나서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돌아보았다.

이들은 영월 한반도마을, 금산 부리수통마을, 신안 증도면 우전리, 울주 금곡마을, 고령 개실마을 등에서 홈스테이 등을 하며 농촌을 체험하고 민속놀이·전통 예절을 배웠다.

2일부터는 서울로 이동해 광화문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아리랑 퍼포먼스’를 벌인 후 한국 근현대사 문화유적 순례와 도시 탐험에도 나섰다.

“TV 사극에 등장하는 전통 마을 와보니 신기해요”

“TV 사극에서 본 전통 마을을 직접 보니 신기해요, 마을 분들도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모국의 푸근한 정을 느껴서 행복합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개실마을을 찾아온 52명의 동포 대학생은 영남 사림(士林)의 종가(宗家)에서 전통문화의 매력에 푹 빠졌다. 중국, 미국, 멕시코, 칠레 등 19개국에서 온 이들은 1일 오전 개실마을의 종가 고택에서 김중수 이장으로부터 전통 예절을 배웠다.

개실마을은 조선 중엽 영남 사림파의 종조(宗祖)로 불리는 집필재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360년 된 한옥 마을이다.

사랑방 마루에 둘러앉은 학생들은 김 이장으로부터 목례, 세배, 제사절 등 올바른 인사의 의미와 방법을 배웠다.

“약수는 서양에서 온 인사법이고 우리는 서로 고개를 숙이는 목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나 어르신을 만나면 절을 했죠. 세배할 때 절과 제사 때 절하는 법도 다릅니다. 각각의 형식에는 그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세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신기한 듯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처음 해보는 절에 자세가 잘 안 잡혀기 우뚝거리면서도 진지함을 잃지 않았다.

대표로 세배를 드린 후 세뭇돈을 받은 게 신기하고 기쁜 멕시코 한인 후손 유알란(22·남) 씨는 “할아버지의 나라가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간직해 왔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더욱 번창하라는 의미로 준 세뭇돈이라 쓰지 않고 기념으로 간직해야겠다”고 활짝 웃었다.

학생들은 “대나무를 마을 뒤쪽으로 둘러 심은 것은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울곧은 선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김병만 마을 회장의 소개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영남 사림(士林)의 종가(宗家)인 경상북도 고령군 개실마을을 찾아온 52명의 동포 대학생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올바른 인사법 등 전통예절을 배웠다.



개실마을에서 동포 대학생들은 전통문화 체험으로 징, 북, 팽과리, 장구 등 ‘사물놀이’도 배웠다.

러시아 모스크바 의대에서 의술을 배우는 고려인 4세 김성미(23·여) 씨는 “옆집이 다 들여다보이는 낮은 담을 쌓은 이유가 서로 터놓고 지내며 교류하자는 의미라니 얼마나 이웃과 우애가 깊었는지 알겠다”면서 “여기 오니 러시아에서 못 느꼈던 우리 민족의 ‘정’에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라고 즐거워했다.

이들은 31일에는 민속놀이 체험으로 물총 만들기, 굴렁쇠 굴리기, 장대 걷기 놀이를 즐긴 후 징, 북, 팽과리, 장구 등 ‘사물놀이’도 배웠다.

참가자들은 “TV에서 본 사극에서 나오는 한옥 마을이 그냥 예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철학을 담고 있어 감동적”이라며 “어어건을 틀지 않고 자도 시원해 한옥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체험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농촌 돕기에 나서 곳곳을 청소했다. 또 개실마을을 찾는 다른 외국인들을 위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등으로 마을을 소개하는 안내판과 팸말을 만들어 기증했다. **장**

뉴욕 한인 예술가들, 태극기 주제 작품 전시회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인 예술가들의 재능기부 모임인 '크리에이트(K/REATE·대표 이상인) 소속 회원들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태극기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뉴욕커들에게 선보였다.

'기리다, 그리다, 새기다' 라는 제목으로 뉴욕 맨해튼 중심가인 5번 애비뉴의 스페이스 가비 갤러리에서 8월 21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트 소속 예술가 35명이 저마다 '새로운 모습의 태극기' 작품을 내놓았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정신을 태극기를 통해 형상화해보자는 게 이번 전시회의 취지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국인 예술가들이 태극기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뉴욕커들에게 선보였다.

크리에이트의 전시회 개최 뜻에 공감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 35명도 작품을 전시회에 내놓았다. 크리에이트 이상인 대표는 8월 18일 "태극기는 우리 국민의 희로애락의 순간에 늘 함께해왔던 대표적인 상징이자 이미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태극기는 예술적인 관점에서 도 훌륭한 디자인인 만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해석과 표현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는 게 전시회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크리에이트는 전시회와 함께 모금운동(<http://m.newsfund.media.daum.net/project/253>)도 벌인다. 후원금이 모이면 뉴욕 지하철 등에 태극기 광고를 실어 대한민국을 알릴 계획이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광복 후 여성 역할 조명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제15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가 경남 통영시 국제음악당에서 33개국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6~28일 열렸다.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코리아 70년, 한인 여성과 함께 열어갑니다'를 주제로 광복 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한인 여성들의 역할을 조명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

26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사에 이어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1930년대 10대 소녀로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오희옥 지사가 대담자로 참석해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의 삶 등을 밝히는 특별 세션이 진행됐다. 이 세션에는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회식

과 여성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시집을 펴낸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이 각각 좌장과 발표자로 참석했다.

특별세션 후에는 소통·화합, 역사, 양성평등, 문화, 복지 등 5가지 소주제로 토론하는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이 진행됐다. 소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은 올해 처음 신설됐다.

행사 2일차인 27일에는 소그룹 형태로 모여 국내외 여성이 교류하는 시간이 마련됐고, 마지막으로 28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진행됐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재외 한인 여성의 정체성을 높이고 국내외 한인 여성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고려인 예술단 국내 연수

8월 24일 저녁 서울 중구 필동의 '한국의 집'. 여름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한옥 극장에서는 전통 춤 '태평성대', 판소리, 설장구 등 전통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객석에는 유독 두 눈을 반짝이며 무대를 지켜본 특별한 관객이 있었다. 바로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날아온 고려인 예술단 '아리랑 무용단'의 단원들이다.

이들은 한국문화재단, 동북아평화연대의 초청으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 일정으로 서울을 찾아왔다. 한국의 전통 무용을 배우려고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방한 단원 6명 중 맏언니인 현 스베타(22) 양은 "한국 전통 무용을 배워보니 춤사위도, 가락도 다른 점이 많았지만 무척 새롭고 재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려인 예술단 '아리랑 무용단'의 수석 단원인 현 스베타(22) 양

아리랑 무용단의 역사는 무려 20년에 달한다. 강제 이주로 중앙아시아 황무지를 떠돌면서도 한민족으로서 뿌리를 잃지 않으려는 고려인들이 자체적으로 꾸린 예술단이다. 1996년 1월 첫 공연을 연 이후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과 북한 평양, 그리고 서울, 부산 등 고국에서 꾸준히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6명으로 시작한 아리랑 무용단은 현재 10~20대인 고려인 후손 30여 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단장인 김 발레리아(56)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부회장은 "머나먼 연해주에서도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아리랑 무용단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모국을 잊지 않고 전통을 지키려는 고려인 후손의 열정이 무용단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393명 러시아 방문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후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다가 1990년 초 이후 국내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8월 7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 내 옛 거주지를 방문했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서울·경기 등 24개 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귀국자 393명의 러시아 방문 사업을 차례로 실시했다. 이들 가운데 61명은 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항공기편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출국했다. 10일에는 80여 명이 사할린과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



대한적십자사의 영주 귀국 지원 사업을 통해 고국에 돌아와 정착한 사할린 동포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려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에 영주 귀국해 정착한 사할린 동포들이 1~3개월간 사할린 등 러시아를 방문, 현지에 있는 가족과 친지를 만나게 해 제2의 이산가족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적은 2001년부터 매년 이 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5천981명에게 사할린 등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지원했다.

사할린 동포는 한·일 정부와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지난 1992년부터

귀국,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3천여 명이 경기 안산·파주와 인천 등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아세안 통합 차세대 무역스쿨에 12개국 105명 참가

대만,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ASEAN) 지역 12개국에서 온 105명의 한인 차세대 무역인이 8월 6일 필리핀 마닐라의 로페스센터에서 열린 '아세안 통합 차세대 무역스쿨' 개교식에 참가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출) 필리핀지회(지회장 이규초)가 이날부터 3일간 개최한 무역스쿨은 월드옥타가 2003년부터 현지 재외동포 1.5~5세대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여는 프로그램이다. 무역 실무와 경영 노하우를 익히게 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는 동시에 차세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미래의 경제 리더로 육성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 각 지회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던 무역스쿨을 올해는 동



아세안(ASEAN) 지역 12개국에서 온 105명의 한인 차세대 무역인이 '차세대 무역스쿨' 개교식에 참가했다.

남아시아 지회가 힘을 합쳐 한자리에 마련했다. 동남아에서 통합 무역스쿨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스쿨은 현지 교육과 모국 방문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 행사처럼 인근 지역의 지회가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통합 무역스쿨'이 각지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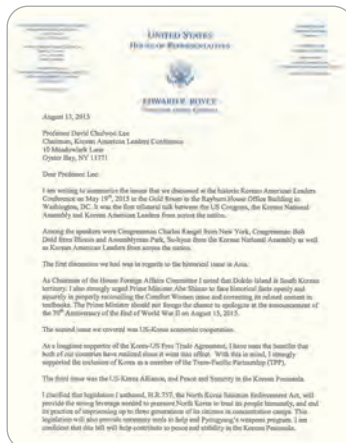
차세대들은 개교식에 이어 박기출 회장, 박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개그 트리오 '컬트 삼총사'의 멤버였던 정성환 쇼비티 대표 등의 특강을 듣고 7일에는 최분도(베트남), 장재중(필리핀), 권병하(말레이시아), 장영식(일본) 회장 등 한상으로부터 성공 노하우를 들었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차세대들이 준비한 창업 프로젝트 설명회도 진행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독도는 한국 땅” 공식 문서로 남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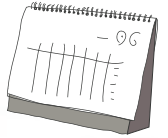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 이철우 회장은 8월 14일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명시한 공식 문서(official record)를 만들어 전달 보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재미한인지도자대회에서 했던 발언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으로, 미국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한 것을 공식 문서로 남긴 것은 처음이라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특히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여서 로이스 위원장의 공식 문서는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밝힌 공식 문서

로이스 위원장은 이 문서에서 1회 재미한인지도자대회가 미국 의회, 대한민국 국회, 재미한인 지도자 등 3자 회의로 진행됐다는 내용을 기술한 뒤 “하원 외교위원장으로서는 나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언급했다”고 적었다. 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위안부 이슈를 해결하고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바로잡는 데서 뚜렷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고도 명시했으며,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사과할 기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포함했다. 이 밖에 한미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 북한 인권 등과 관련한 대화도 대화에서 오갔다고 명시했다. **▶**



한인 1.5세 피터 권, 워싱턴 주 시택 시의원 선거 출마

한인 1.5세 피터 권(한국명 권승현 · 45) 씨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남쪽에 있는 인구 12만 명의 소도시 시택 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시의원 제3 선거구 후보로 나선 그는 8월 4일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11월 본선거를 치른다. 권 후보는 시애틀에 있는 온라인 뮤직 스트리밍 회사인 랩소디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음악 서비스 회사인 랩소디는 세계 80여 개국을 상대로 주문형 음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 미술전시회

아르헨티나 한인회(회장 이병환)는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 미술전을 9월 14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보르헤스 문화센터에서 열고 있다. 한인이 아르헨티나에 공식 이민을 통해 첫발을 디딘 것은 1965년 10월 14일. 한인들은 '어제 오늘 내일, 함께하는 50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민 5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이민 50주년 기념식은 9월 20일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남부 차카부코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일한국청년회 도쿄 본부 OB클럽 결성

재일한국청년회 도쿄 본부의 OB 클럽이 10월 4일 한국중앙회관에서 결성된다. 결성준비위원회(위원장 박방식)는 이미 6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준비 작업을 해 왔다. 도쿄 본부가 결성된 것은 1972년 10월 22일로 히로시마, 효고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다. 결성 초기 회원은 70대가 됐지만 40~60대 회원은 민단의 본부와 지부, 체육회, 한상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선족기업가연합회 '제1회 한민족 경제포럼' 개최

조선족기업가연합회(회장 표성룡)는 오는 11월 선양에서 재중국한국상회와 함께 '제1회 한민족 경제포럼'을 개최한다. 1세대 기업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국 덕분이라고 보고 모국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모국과 해외의 한인 기업인도 초청하는 행사로 경제인 네트워크를 조선족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민족 전체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헝가리 재외공관서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 시상

8월 2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주헝가리한국대사관에서 '제17회 재외동포문학상'에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에서는 수필 부문 가작에 원선미(49·여), 청소년 중·고등 글짓기 우수상에 최하빈(16·여)이 뽑혔다. 시상식에서 임근형 주헝가리한국 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하고 문학 활동을 격려했다. 대사관은 시상식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렸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 복원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 복원 작업에 나섰다. 충칭(重慶) 임시정부 청사는 중국에서 27년 동안 독립운동을 펼쳤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다. 1945년 1~9월 사용된 뒤 폐쇄됐다가 지난 1995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기존 청사는 시설물과 전시물이 많이 낡은 데다 최근 방문객이 많아져 3개월간의 시설 보수 및 전시실 리뉴얼 등을 거쳐 11월 중순 재개관될 예정이다.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으로 전기 맞은 쿠바의 한인사회 광복 운동 후원한 쿠바 한인들



미국과 쿠바가 7월 20일 양국 수도 워싱턴DC와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했다. 이로써 1961년 단절된 양국의 국교가 54년 만에 완전히 정상화됐다. 양국은 이날 상대국 수도에 있는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공식 승격하고 업무를 재개했다.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혁명 이후 국교를 단절한 양국은 1977년 이익대표부를 설치해 영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

당달아 한국과 쿠바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 미수교 상태이지만 양국 국민이 느끼는 유·무형의 거리는 이미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카리브해의 진주'로 불리는 쿠바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가 하면, 쿠바에서 한류 드라마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다.

12년 전 한 해 100명도 채 안 됐던 한국인 관광객은 작년 한 해에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양국 간 '마음의 거리'를 더욱 좁혀놓고 있는 것은 한류 드라마다. 국영TV 방송국인 '카날 아바나'의 리우바르 로사다 에르난데스 총국장은 2012년 '내조의 여왕'이 방영될 때 시청률이 무려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한류 드라마가 우리 쿠바인들을 한국 문화에 푹 빠뜨려놓았다"면서 "‘아가씨를 부탁해’, ‘대장금’ 등의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보이면서 한국 드라마가 쿠바 안방을 장악해온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드라마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남미 지역의 한인 최초 이주는 1905년 5월 15일,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Merida) 주에 도착한 1천31명의 조선인 계약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04년 10월 15일부터 조선 각지에는 4개월 동안 멕시코의 계약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붙었다. 1905년 2월 집결지인 제물포항에는 1천여 명의 계약노동 희망자가 모여들었다. 이들은 약 2개월간의 항해를 끝내고 멕시코에 도착했다.



1921년 3월 초 멕시코 한인 이주 노동자 가운데 300여 명은 쿠바로 대대적인 이주를 했다. 멕시코에서 이들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생활이 더 낫다고 들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프로그레소 항을 떠난 이주자들은 쿠바 이민국의 수속을 거친 후 3월 25일 쿠바의 마나티 항에 도착했다.



쿠바 이민 1세대들, 고된 삶 속에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

쿠바 동부 마나티 항구 마을에서 사탕수수 수확 일을 하던 이들은 그해 5월에 다시 인근의 마탄사스 시로 옮겨 농장 일을 했다. 이후 마탄사스 농장 지역은 쿠바 한인의 주된 근거지로 자리 잡게 된다. 이들 한인인 1937~1944년 독립운동 자금 1천499달러를 모아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했다. 이는 초대 쿠바 한인협의회 회장인 고 임천택(에르네스토 임·1903~1985) 선생이 주도했다.

쿠바에서 독립운동과 한인 교육 활동에 나선 임천택 선생은 1925년 한인촌에 민성국



어학교를 설립해 교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1930년대에는 청년학원과 대한여자애국단 쿠바지부 창설을 주도했다. 그는 두 살 때인 1903년 어머니와 함께 유카탄으로 건너와 16년간 한인학교에서 한글을 깨우친 것이 전부였으나 쿠바에서의 한인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임 선생은 마탄사스, 카르테나스 등지에 흩어진 한인 지방회를 규합해 '재쿠바 한족단'을 결성한 뒤 1934년부터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복운동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에는 고국과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쿠바에서도 광복을 위한 후원을 보냈다고 서술돼 있다. 당시 에네켄 농장에서 하루 임금 7~8원을 받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인 지방회 회원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악착같이 정성을 모았다.

쿠바 한인 후손들은 8월 16일 한·쿠바 문화클럽에서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카리브 지역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토니오 김 함 한인후손협의회 회장, 에라스모 데 헤수스 라스카노 로페스 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 수석부원장, 한인 후손, 현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쿠바 문화클럽은 민주평통 중미·카리브 지역협의회 소속 13개국 자문위원들이 주도해 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의 협조 하에 작년 8월 건립됐다. 1921년 한인 1세대가 멕시코에서 재이주해 정착한 지 93년 만에 처음 세워진 이 문화클럽은 한국 문화 소개와 한

글학교 운영의 요람이자 후손들과 현지인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인 후손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을 지닌 쿠바인들과 잘 융화해 살아왔다. 110년이 지난 지금 후손은 1천1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순수 혈통은 8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1. 쿠바 한인 후손들이 8월 16일 쿠바 수도 아바나의 신시가지에 있는 한·쿠바 문화클럽에서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안토니오 김 함 한인후손협의회 회장, 한인 후손, 현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 쿠바 독립운동가였던 임천택 선생의 3녀 마르타 임(한국 이름 임은희·77) 여사는 역사 학자였던 쿠바인 남편과 함께 10년의 공을 들여 '쿠바의 한인들'이라는 책을 펴냈다.
3. 42년 만에 처음 공개된 '쿠바 한인 이민 역사'. 쿠바 이민 1세대인 고 임천택 선생이 1953년에 쓴 것으로 당시 한인들의 생활상, 독립운동 지원 내용 등이 실려 있다.
4. 한인 후손 초청 연수로 쿠바에서 온 엘리자베스 주닐다 산체스 리베로(한국명 생애리·21·여) 씨가 2013년 8월 13일 인천시 이민사박물관에 전시된 자신의 증조부 사진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5. 쿠바 마탄사스 주 마탄사스 시 엘 볼로 마을 입구에는 2005년 미국 시애틀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도움으로 세워진 한인 이주 기념비가 있다.
6. 쿠바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을 위한 문화원이 2014년 8월 10일 수도 아바나의 신시가지에 건립됐다. 개원식에 초대된 쿠바 최고의 여성 밴드인 9인조 '아나 카오나'는 2시간 동안 열정의 무대를 선사했다.
7. 지난 2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의 한국 부스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GLOBAL KOREAN

한국어 세계화에 앞장서는 **최경미** 한·미헤리티지교육재단 이사장

“한국어 가르치는 뉴욕 공립교 늘어 보람”



지난 2011년 미국 뉴욕에서 비영리단체인 한미헤리티지교육재단(KAHF)을 설립한 최경미(여·53) 이사장은 뉴욕 주에서 한국어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다.

KAHF는 뉴욕 주에서 정규학교 내 한국어반을 개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해왔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급은 2011~2012년에 공립 초교 5개교를 비롯해 16개에 불과했으나 2012~2013년 18개 학급, 2013~2014년 21개, 2014~2015년 83개 학급으로 늘어났다.

KAHF는 지난해 12월 뉴욕 주 교육국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가받았다. 지금까지 KAHF가 양성한 한국어 교사는 12명이나 된다. 앞으로 뉴욕 주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해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면 교육국이 요구하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들 12명의 교사는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최 이사장은 뉴욕 주에서 100명 이상의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미국 전역으로 진출해 다른 주에서도 한국어를 주요 언어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각오로 열정을 다해 뛰고 있다.

KAHF는 미국인은 물론 한인 자녀를 위한 다문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뉴욕 주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있다.

서울 출신인 최 이사장은 중앙대 독어독문학과를 나온 뒤 대외외고 독일어 교사로 재직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로 이민한 그는 오렐로버츠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한 뒤 남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뉴욕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현재 리버사이드교회에서 한인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미국에서 그는 연합감리교회 소속 한글학교와 차세대 교육원을 운영했고, 뉴욕에서는 2004년부터 브롱크스 지역 및 마운트 버논 지역의 9개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12년간 재직했다.

팬암대회 개폐회식 무대 연출 맡은 캐나다 한인 **장희용** 씨

단오제, 한가위축제 등 연출하며 실력 인정받아

팬아메리칸게임(팬암대회)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스포츠 행사로 '미주 대륙 올림픽'이라 불린다. 올해는 7월 10일부터 26일까지 토론토 등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일대에서 41개국 49개 종목 7천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가 끝난 후인 8월 7일부터 9일간 같

은 장소에서 28개국 1천608명의 장애인이 참가한 패러팬암대회가 치러졌다.

올해 팬암대회와 패러팬암대회의 개·폐막식 연출을 30대의 캐나다 한인 1.5세가 맡아 화제다. 주인공은 대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94년 부모와 함께 캐나다에 이민한 장희용(캐나다명 피터 장·



32) 씨. 그는 이번 대형 스포츠 제전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서 공연예술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토론토의 요크대에서 경제학을 배우면서도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공연의 무대 연출 부문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제7대 캐나다한인대학생총연합회(KSAC) 회장으로 활약하면서 통솔력도 익혔다.

2010년에는 공연의 메카인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뉴욕주립대를 다니며 지식을 넓히는가 하면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한인

사회의 굵직굵직한 행사인 단오제, 한가위 축제, 크리스마스 뮤지컬 등을 연출했다.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경력도 만만치 않다. '2014 밴쿠버 캐나다풋볼리그(CFL) 그레이컵' 하프타임 공연, 'U-20(20세 이하) FIFA 월드컵' 공연 등의 무대를 성공적으로 꾸몄다.

지난해 공연기획사 하이퍼 크리에이티브(HYPR Inc.)를 설립한 그는 조명·음악·안무 등 모두 4명의 '세리머니 무대감독' 가운데 한 명으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면서 한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 동포 작가 **아나톨리 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고려인의 혼

아나톨리 김(76) 씨는 1939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로 러시아 문단의 대표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모스크바미술대학과 고리키문학대학을 나온 그는 1973년 단편 '수채화'와 '묘코의 들장미'를 문예지 '오로라'에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고, 1984년 장편소설 '다람쥐'를 발표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다람쥐'로 모스크바예술상, 톨스토이문학상을 받는 등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작가로 자리 잡은 그는 '바흐 음악을 들으며 버섯이 필 때', '켄타우로스의 마을', '신의 플루트' 등 다수의 작품을 썼다.

김 씨는 2011년 국내에서 자신의 삶과 문학을 솔직하게 전한 자전 에세이를 출간하기도 했다. 자전 에세이는 1990년대 러시아에서 집필한 글을 김현택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장이 옮긴 1부 '초원, 내 푸른 영혼'과 2부 '나의 삶, 나의 문학' 두 권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나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글을 쓰

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다. 다른 고려인들도 한국인이고 싶어 한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죽고 싶어 한다. 어디를 가나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1906년 러시아로 이주한 조부의 3남매 중 막내인 부친 알렉세예비치 김 씨의 삶도, 자신의 삶도 그런 독특한 관계 속에 설정돼 있다.

김 씨는 "강제 이주를 경험한 고려인들은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한 채 익명 상태로 살고 주변인으로부터 질투와 증오를 받으며 방랑하는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철저히 개인주의로 흘렀다"며 "그런 '은근과 끈기'는 나의 작가 정신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100편이 넘는 작품을 쓴 그는 1997년 톨스토이재단이 창간한 러시아 최대 문학지 '야스나야 폴랴나'의 초대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의 숲', '다람쥐' 등 대표작이 20여 개 국어로 번역될 만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창**



급변하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차세대와 기업인 창업에 적극적인 2세대가 조선족 중심으로 부상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한·중 수교와 도시화·세계화로 중국 조선족 사회는 격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전통적 거주지에서 절반 이상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역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소수민족보다 빠르게 경제적 부를 축적해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다는 상반된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륙 도시와 한국 등으로 진출한 1세대는 초창기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며 실력을 키웠다. 이에 비해 2세대라 할 수 있는 20~30대의 청년들은 고학력·현지화·직업의 다양성 등의 면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조선족 청년은 창업과 취업에 적극적이다.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주도인 옌지(延吉)시에서 연변한식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김순옥(54·여) 연변조선족전통음식연구소 소장은 “요리사가 되거나 한식당을 차리겠다는 포부를 안고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리는 젊은이가 최근 부쩍 늘었다”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요리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 꺼리던 직업이었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매달 20~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이곳 졸업생으로 옌지시에서 ‘사계절

돌솥밥’ 식당을 운영하는 박찬결(28·남) 씨는 “한식의 인기 덕분에 손님의 절반 이상이 한족(漢族)”이라며 “기회가 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중국 전역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업 CEO를 비롯해 언론·법률·예술·스포츠 분야 청년 인재들로 구성된 연변조선족청년경영자연의회(이하 청경연·회장 김일)가 조선족 차세대를 이끌어갈 단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의 후원으로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나이는 25세 이상 40대 이하이며 회원 수는 100여 명을 헤아린다.

김일(42) 회장은 “회원 가운데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유학한 경험자가 많아 감각이 국제적”이라며 “서로 협력해 동반 성장하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나눔’을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전역과 한국으로 명태를 수출해 5천만 위안(약 9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한국인 디자이너를 채용해 동북 3성에서 양복과 근로자 단체복 시장을 석권한 기업 등도 회원사”라며 “청년 기업이지만 규모는 이미 업계를 주름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일(32) 씨는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해양대를 졸업한 뒤 한국 선박회사인 STX를 거쳐 물류회사인 한진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청경연 설립 소식을 듣자 곧바로 사표를 내고 연변으로 돌

1. 지난해 11월에 결성된 연변조선족청년경영자연의회에는 기업인, 예술인, 법률인 등 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2. 중국 지린(吉林)성 연지(延吉)시의 연변한식아카데미는 매달 20~30명의 한식 요리사를 배출하고 있다.



아왔다. 진작부터 고향에서 사업을 펼쳐보고 싶었던 그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과 교류하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었다. 산업용 발전기 회사인 BIDA인터내셔널의 지린성 총대리점 사장인 그는 “중국 정부가 창춘(長春)-지린-투먼(圖們)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의 나선항까지 도로가 완공되면 엔벤은 동북아 물류 중심 지역이 돼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덩달아 선박·해운 분야 사업도 커질 것에 대비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조선족 기업인 단체들 “글로벌 경제 공동체 건설에 앞장”

과거 조선족 사회는 농촌 등 마을에 기반을 둔 ‘밀집형 지역공동체’였으나 최근에는 탈농촌과 도시화, 내륙 도시 및 해외 진출 등의 추세에 따라 ‘네트워크 공동체’로 바뀌고 있다. 지린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여전히 조선족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거주지의 글로벌화로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는 조선족 사회를 하나로 뭉치고 한민족 간의 교류에도 앞장서도록 기업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해 부를 축적했다. 기

업인 단체를 이끌면서 차세대 육성과 조선족의 정체성 유지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조선족 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선족 일이라면 열 일 제치고 달려간다는 표성룡(61) 조선족기업가연합회 회장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선양(瀋陽) 등 중국 주요 도시에 27개 지회를 두고 4천 개 회원사에 1만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조선족 최대 단체의 수장이다.



표성룡

랴오닝성 선양의 조선족 밀집 지역인 시타(西塔)에 연합회 사무실을 두고 있는 표 회장은 “조만간 4~5곳에 새로 지회가 설립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외 지회도 결성해 명실상부한 조선족 글로벌 경제 공동체로 뿌리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허덕환(56)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창업 1세대가 60~70대로 접어들어 후계자를 올바로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창의적인 차세대의 패기와 생존력이 강한 창업 세대의 경험을 잘 살리면 더 큰 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덕환

1987년에 설립된 협회는 가장 오래된 조선족 기업인 단체다. 100여 개의 회원사는 대부분 각 분야에서 선두 주자여서 지역사회의 신망도 두텁다.

30~40대인 2세대에게 경험도 전수하고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회는 지난해 ‘연변조선족청년경영자연의회’를 만들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다. 연지 시내에 2개의 백화점과 서점 등을 운영하는 허 회장은 “경제인 단체지만 동포 사회의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장학 사업과 차세대 육성에 앞장서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에 협회가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됐다”면서 “소수민족이라 정치적 성장에 한계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 연길 지회를 이끄는 허재룡(55) 회장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갖고 자신감 있게 살도록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창업 사관학교인 월드옥타 차세대 무역스쿨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재룡

월드옥타 연길지회에는 165개사에 6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무역스쿨이 배출한 차세대도 700여 명에 이른다. 그는 “소수민족의 미래는 경제적 자립도와 연관이 깊다”며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인이 많이 나올수록 사회적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창**

“모국 발전상·역사·문화 체험해 한민족 유대감 커졌어요!”

재중동포 청소년 152명 모국 방문 남산 한옥마을 체험, ‘도전 골든벨’ 출연



▲ 참가자들은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어보며 전통 예절 교육을 받았다.

◀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모국방을 밝은 재중동포 청소년과 교사 152명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 부산, 천안 등에서 모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재중동포 청소년과 교사 152명이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재외동포재단이 올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재중동포 청소년의 모국 체험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키우고 한민족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동북 3성의 조선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으로 지난 4월 진행된 동북 3성 한글 글짓기대회 예선전을 통해 선발됐다.

27일 인천시 송도의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한 동민걸 재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는 “90만 명에 이르는 재한 중국 국적자가 한중 경제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부모가 취업 등으로 한국에 오는 바람에 중국에서 떨어져 사는 학생이 많지만 타향에서의 수고를 잊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중국조선족기업가연합회의 표성룡 회장은 “조선족은 720만 재외동포 가운데 우리말과 얼을 가장 잘 지켜왔다”며 “이번 역사·문화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워 한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 꽃피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에 앞서 K-POP 댄스, 진도 북춤, 성악 공연 등 국내 유망 중인 재중동포 학생의 축하 무대도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28일부터 서울-부산, 부산-서울 2조로 나뉘어 천안 독립기념관 방문, 한국 전통문화 체험, SM타운 방문, 서울·부산 이색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모국 문화에 흠뻑 취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진행된 예절 교육, 다도 교육, 한복 입어보기 등 전통문화 체험은 재중동포 청소년들에게 ‘한민족’ 뿌리와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도왔다.

31일에는 청소년 대상의 인기 퀴즈 프로그램인 ‘KBS 도전 골든벨’에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재중동포 최초의 골든벨 주인공이 되겠다며 퀴즈에 집중했다. 녹화 현장에는 이들의 가족도 참석해 박수를 치며 응원해 대회 열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패자부활전을 거치며 열린 퀴즈 경연을 펼친 이들은 “퀴즈를 통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층 더 잘 알게 돼 기쁘다”며 “중국 각지에 흩어져 살았지만 이번 기회에 참가자 모두가 합심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귀중한 체험을 했다”고 기뻐했다.

초청 연수를 마치면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참가자들에게 “모국 체험을 통해 동질감과 유대감을 키워 한민족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재단은 한민족 미래 자산인 재중동포 청소년이 글로벌 코리안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

재외동포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국내 재산 반출 자금출처확인서 첨부해 신고하면 끝

재외동포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대금, 국내 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 매각 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 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등을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처분 대금을 제외한 국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에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반출하려면 외국으로부터 휴대 수입하거나 송금된 자금으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취득에 대해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고 담보 실행에 따라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매각 대금의 반출은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등(재외국민) 등 재외동포는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가구당 연간 100만 달러 이내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다.

과거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국내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이미 연간 10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 매각 대금 반출이 허용돼 재외국민에 비해 외국국적 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도 외국국적 취득자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



1999년 외환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당시 외환은행은 재외동포 전담 데스크를 영업장에 설치하고 새로운 외환거래법에 대한 상담 업무를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재외동포가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와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발행)를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화의 반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해 인정된 투자 이외에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 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화의 반출은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외화 반입 시 신고 절차를 준수한 외화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거쳐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비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외국인 등은 거주자가 된다. 내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해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년 이상 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 기간은 2년에 포함) 등은 비거주자로 보고 있다. **창**

Q&A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재미동포가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반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부동산 매각 대금은 부동산 취득 신고필증, 매매 계약서, 세금 납부 영수증 등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후 반출할 수 있다.

열차로 러시아-독일 횡단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통일 성지' 베를린서 대장정 마무리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등을 잇는 세계 최장의 철길을 달려 1만4천 400km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정·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참가자는 7월 14일 서울역에서 발대식을 연 뒤 비행기 편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러시아, 중국, 몽골,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등 6개국을 달렸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북선과 베이징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로 향하는 남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50여 명의 '북선' 참가자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1만1천900km, 50여 명의 '남선' 참가자들은 중국횡단철도와 몽골횡단철도를 따라 2천500km를 복상해 이르쿠츠크에서 북선 참가자들과 합류했다.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 바르샤바, 울란바토르 등 기착지에서는 물류, 경제협력, 문화 교류, 평화, 통일 등을 테마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이르쿠츠크에서 참가단은 고려인과 한인회, 현지인 등 1천여 명과 함께 바이칼축구경기장에서 '유라시아 대축제'를 열고 친선 축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구경기, 한식 홍보, 전통놀이 체험 등을 진행했다.

7월 26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한 참가단은 한·러 수교 25주년·광복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음악회에 참석했다. 이어 28일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전러시아 고려인연합회와 모스크바한인회 주최로 열린 재러동포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한 뒤 모스크바 벨라루스역에서 다시 유럽철도를 타고 다음 기착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했다. 7월 30일 폴란드에서 독·폴 과거사 화해 경험 공유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단은 31일 종착지인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베를린 6·17 거리에 집결한 친선특급 참가단과 재독 한인, 독일 대학생 등 250여 명은 간단한 기념행사를 연 뒤 풍물패의 길놀이를 앞세워 2km 떨어진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왕복 6차로 중 3개 차로를 이용해 40여 분간 행진했다.

이날 저녁에는 친선특급이 여정을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는 리셉션이 브란덴부르크 문 알리안츠 포럼에서 열렸고, 야외 특설무대에 선 폐막 음악회가 진행됐다.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백건우, 김덕수 사물놀이패, 지휘자 지중배, 구동독 출신 지휘자 유르겐 브른스가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는 공연을 펼쳤다. 모든 행사를 마친 참가단은 이튿날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장**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단원들이 원정 마지막 날인 7월 31일 독일 6·17 거리에서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행진하고 있다.



고국인 듯 고국 아닌 고국 같은... 한국

김탁 | 요녕신문 기자

“가족처럼 친근하고 포근했다”

김란화 | 해란강닷컴 기자

7월 1일, 생애 첫 서울행이 이루어졌다. '재외동포재단 동포언론인 초청 연수' 프로젝트에 운 좋게 합류해 밟게 된 한국 땅. 숙소인 광화문 주변에는 전부 우리글과 우리말이라 낯설지만 또 낯설지 않은 아이러니한 느낌의 서울이다.

주말을 이용한 문화 탐방으로 들른 전쟁기념관, 공주 무령왕릉,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면서 한 민족이란 귀속감을 느꼈다. 대륙의 문물들은 수도 없이 많이 봐왔지만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눈앞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언론사 연수 기간의 체험도 보람이 컸다. 세계 한인회 사무국장들의 모국 연수를 취재하러 갔다. 재외동포재단과 한인회, 주최자와 참가자 양방이 의견을 숨김없이 드러내놓고 일문일답하는 방식이 현장감이 짙어서 중국과는 사뭇 달랐다.

청와대와 통일부·외교부 기자 브리핑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체제의 차이도 있겠지만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취재 활동에서 기자와 취재원의 의견 대립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을 선호한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흡수한 한국에 비해 동양적인 사고를 뺏속까지 가지고 가는 중국인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대립이나 충돌을 밖에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 소화하는 중국 스타일과, 모든 의견과 대립을 서로 공개한 뒤 해결하려는 한국의 상반된 스타일.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확연한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양국의 모습을 취재 일정 내내 느낄 수 있었다.

익숙한 듯 낯선 한국, 한민족이면서도 중국인인 나에게 한국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익숙한 이웃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는 낯선 이웃인 듯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재중동포 언론인 초청 연수에 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1순위로 가고 싶었던 대한민국 최고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연합뉴스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한민족이기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는지 모른다.

연수 기간 우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청와대와 국회를 참관했다. 무엇보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숙직실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국민에게 발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려는 정치부 기자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근사하고 멋져 보였다.

여러 부문과 함께 동행 취재를 다녔지만 가장 뜻깊은 취재는 문화부 기자와 동행한 아이돌그룹 '인피니트'의 쇼케이스 현장이었다.

중국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인피니트의 인기는 여기서도 하늘을 찌를 듯했다. 수많은 팬 때문에 인피니트가 오래갈 수 있고 좋은 음악이 나오는 듯했다.

한국에 직접 와서 재한 중국동포(조선족)의 현황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심각하게 느껴졌다. 법무부가 동포의 입국 문호를 개방해 예전 같은 불법입국 사례는 잦아들었지만 또 다른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연합뉴스에는 다른 언론사에 없는 한민족센터라는 동포와 다문화 관련 취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다. 전문적인 동포 취재기자가 있는가 하면 기자들 모두 중국 조선족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깊어 보였다. 기사를 통해 우리 재중동포들의 목소리를 국내외 각지에 전파하는 역할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창**

편집자 주 = 재외동포재단은 재중동포 언론인 역량 제고와 국내외 언론인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 3곳과 함께 재중동포 언론인 6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

재스민 쌀과 된장찌개

정동철 호주 | 2013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가작

오랜만에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아침이다. 쌀이 떨어져 일주일째 밀가루 빵으로 연명하던 참이라 더없이 반가운 냄새다. 아이 넷 키우느라 경황이 없는 아내를 대신해서 쌀 소포는 주로 내가 담당하는데 요사이 야근이 많아 쌀 살 틈이 없었다.

설마 밥도 없이 된장찌개만 먹지는 않을 테고 참다못한 아내가 결국 쌀을 사온 모양이다.

한국 음식에 굶주린 위장이 한바탕 용트림을 친다. 가스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 푹배기를 보니 더는 참기 어렵다. 빈 공기와 주걱을 들고 덜컥 밥통을 열어젖혔다. 어린 시절 한국 고향집에서처럼 뜨거운 밥에다 된장국물 붓고 김치 한 쪽 올리고 비벼 먹을 작정이다.

보얀 김 사이로 주걱을 밀어 넣고 막 밥을 푸는데 쌀 모양이 좀 이상하다. 동글동글 윤기가 흐르는 익숙한 자태가 아니다. 타이나 인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가늘고 길쭉한 재스민 쌀이 아닌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다. 고향의 맛에 불순물이라도 끼어든 듯 불쾌감이 밀려온다.

“이게 뭐야!” 잔뜩 기대했는데 알미운 외모에다 푸석 푸석한 촉감의 재스민 쌀이 영 마뜩지 않다. ‘문경쌀, 뜰부기쌀, 황금빛 노을쌀, 서래야,···’ 처럼 이름만 들어도 군침 흐르는 토종미가 즐비한데 하필이면 외국 쌀로 밥을 짓다니···. 볶음밥이면 몰라도 된장찌개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 쌀이다.

왜 하필이면 재스민 쌀을 샀지?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다시 짜증으로 변했다. 기본 상할까 조심하는 이른 아침이지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 한국 식품점에서 산 쌀이 아니라 인도인 옆집에서 곧 쌀이라고 했다. 된장찌개에 밥 한번 먹어보겠다고 이웃에게서 임시변통한 셈이다. 아내가 불임성 좋은 줄은 알았지만 참 대단한 위인이다.

연초에 이사 온 옆집에는 우리 딸과 같은 학교 동갑 내기가 있다. 둘은 만나자마자 금방 친해져 학교도 같이 다니고 공부도 함께 한다. 서로 ‘베프(Best Friend)’로 부르며 틈만 나면 친자매처럼 어울리는 사이다.

한데 어른들은 데면데면 쉽사리 친해지지 못했다.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 불편한 마음이 들어 멀찍이서 조심하는 편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려다 뭐라도 삐끗하면 괜히 거북해지기 십상이다. 무리 앓고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하지 않을까?

한번은 딸을 데리러 옆집을 찾아가간 적이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맞은편 벽면에 이름 모를 신상(神像)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다신교를 섬기는 힌



두고 가정다웠다. 현관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크고 작은 신상들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어색하고 불안한 마음에 딸이 나오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그 뒤로 지척이 천리라고 이웃이 마치 다른 문명권 세계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가끔 옆집 남자와 마주칠 때면 건성으로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다. 어차피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공통 화제도 찾기 어렵다. 그저 아이들끼리 친하기에 모른 척할 수 없을 뿐이다. 말만 이웃이지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다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라도 할라치면 옆집이 으근히 신경 쓰인다. 한국인에게 소갈비는 언제나 풍요의 상징이다. 그런데 옆집 사람들은 소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하는 힌두교도가 아닌가? 갈비굽는 냄새를 맡으면 우리를 야만인이라고 욕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아닌 게 아니라 바비큐 파티 다음 날 우연히 얼굴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거무칙칙한 옆집 남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 보인다. 한동안 이웃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런 형편에 아내가 그것도 이른 아침에 쌀을 구어 오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정말 허물없는 사이가 아니라면 쉽지 않은 부탁이다. 더구나 쌀은 주식이라 국제적으로 궁색한 티를 광고한 셈이 아닌가? 그렇지만 고만고만한 아이 넷에 둘러싸여 팍팍한 인생을 사는 아내를 나무라기도 뭣하다. 진작 쌀을 사 놓지 않은 내 탓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배가고파 계속 따지고 말고 할 여력이 없다. 재스민 밥이든 뭐든 빨리 먹어 허전한 속을 달래야 할 때다.

하릴없이 까칠까칠한 밥을 푸기 시작했다. 팍팍한 질감의 밥에다 진한 된장국물 붓고 배추김치도 얹었다. 물기나 찰기가 부족해서 버석버석하기 이를 데 없다. 된장은 된장대로, 밥은 밥대로 하나로 섞이지 못하고 따로 따로 놓고 있었다. 입맛이 동하진 않지만 시장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대충 된장국물에다 밥을 말다시피 하고 한술 떠먹었다.

당연히 기대했던 맛이 아니다. 된장국물은 제대로 우려냈는데 역시 밥맛이 압살하다. 한데 계속 씹다 보니 어색하지만 평소에 접하지 못한 독특한 맛이 혀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가장 토속적인 음식이 느닷없이 퓨전

메뉴로 변했나? 아니면 시장기에 휘둘린 탓에 미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가? 화학적으로 섞이지 않는 된장과 밥알이 연달아 교차하며 묘한 맛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고 나니 재스민 쌀과 된장도 그리 나쁘지 않는 궁합이다 싶다. 흔쾌히 한국인 이웃집에 쌀을 꺾준 인도 아낙의 후덕한 씹씹이도 마음에 든다. 알고 보니 아내는 쌀뿐 아니라 그동안 자질구레한 품목들 때문에 자주 옆집 신세를 졌다고 한다. 가위, 빵, 케첩, 카레가루 등이 오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최근에 몇 번 카레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맛이 일품이었다. 그야말로 인도인들이 먹는 카레였으니 원조에 가까운 맛이 아니었을까?

아내는 신세만 지고 잠자코 있을 성격이 아니다. 손이 커서 음식을 만들면 양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나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벌써 빈대떡이나 파전 같은 한국 음식도 무시로 옆집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심지어 매운 떡볶이까지 전파한 지 오래라고 한다. 시시콜콜한 일상의 필요가 피부색, 종교, 문화의 벽을 넘어 양국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카레나 떡볶이 같은 음식 문화의 고갱이들이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인종, 이념, 종교, 철학 등이 편 가름의 수단으로 오용될 때가 많다. 어떻게 보면 현실 생활과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인데도 이편저편 나누어 소모적인 갈등과 분쟁을 벌이곤 한다. 나도 슬쩍 스쳐 지나간 다신교 문화가 불러일으킨 이질감 때문에 이웃사촌을 바다 건너 외국인처럼 먼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다. 한 번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상대를 이상한 존재로만 치부한 '된장찌개'와 '재스민 쌀' 처럼 말이다.

인도와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이 멀리 시드니까지 와서 이웃으로 만났다면 실로 경이로운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그 경이 속에서 오늘 아침 재스민 쌀은 된장찌개와 한 그릇에 비벼져 어느 중년 한국인 아저씨의 시장기를 달랠다. 된장국물에 젖은 재스민 쌀밥 몇 알을 보며 소중한 인연을 '소 닭 보듯' 소홀히 대했음을 반성했다. 인종과 종교, 문화의 벽을 넘어 쌀을 얻으러 이웃집 문을 두드린 아내의 용기가 부러웠다. 앞으로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를 만나면 재스민 쌀밥 맛있게 먹었다고 상냥하게 인사라도 해야겠다. **[장]**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포럼 개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포럼에는 학계,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한국인이 통일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공외교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 정치 현장에서 통일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죠.”

8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한반도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포럼은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가 공공외교 사절로서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주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는 토론의 장(場)이 됐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들은 주재국의 여론 주도층을 설득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통일의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동포의 민족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해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통일을 위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해외 통일 관련 단체의 국내 연계 강화 ▲통일 지도자로서 차세대 동포 육성 ▲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 문화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학계,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전 세계 동포들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재미동포는 한반도 통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 미국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이 참가자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김하영 동국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서 동포사회에 한결같이 명확한 정책 방향과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통일 정책은 재미동포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병국 동덕여대 교수는 “재중동포(조선족)가 남북한 이질감 극복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중칭다오 조선족·현지인 상생 발전 토론회 개최

중국 칭다오(靑島)시에 사는 재중동포(조선족)와 현지 진출 한국인들이 한데 모여 화합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칭다오총영사관(총영사 이수준)은 8월 28일 오후 칭다오시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칭다오 내 조선족과 한국인 각 100명을 초대해 ‘범 동포사회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주칭다오총영사관이 8월 28일 칭다오시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연 ‘범 동포사회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에는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를 비롯해 재중국 한국인과 조선족 200여 명이 참가했다.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선족 측에서는 이봉산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김미정 조선족여성협회장, 여덕선 조선족노인협회장 등 단체 임원과 회원, 현지 진출 재중 한인 측에서는 이영남 칭다오한국인회장, 김기동 고문, 신용현 민주평통 칭다오협의회 부회장, 최영욱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부회장 등 단체 관계자와 일반인이 참석했다.

강사로 초청된 김영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재중동포 사회의 협력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는 20여 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겪은 주류사회 간, 동포단체 간 갈등 등을 먼저 소개하면서 “어느 사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등은 존재하게 마련”이라며 “중국도 조선족과 한국인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중 수교 후 23년을 맞은 지금 조선족과 재중국 한국인 간에 서로 한목소리로 화합해 거대한 중국 시장을 뚫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노적거리 우리 속담에 '노적거리에 불 지르고 싸라기 주워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쌓아 놓은 곡식 더미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싸라기를 주워 먹듯이, 큰 것을 잃고 오히려 작은 것을 아끼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적거리'라는 말을 흔히 우리의 고유어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은 '노적(露積)'이라는 한자어에 '거리'라는 우리말 표현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적'은 '이슬 로(露) 자에 '쌓을 적(積) 자를 쓰는데, 한테에 쌓아둔 곡식 더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곡식이나 땀나무 등을 쌓은 더미를 뜻하는 말로, 예를 들어서 벋단을 차곡 차곡 가리어서 쌓은 더미를 '벋거리'라고 합니다.

또한 이 속담과 비슷한 뜻으로 '집 태우고 바늘 चु는다' 또는 '그릇 옆지르고 깨를 चु는다'가 있습니다.

갈마들다 / 갈마쥬다 우리말 표현에 '갈마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번갈아 든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갈마들었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갈마들다'와 뜻은 다르지만 비슷한 형태의 표현으로 '갈마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 손에 쥘 것을 다른 손으로 바꾸어 쥬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손에 짐을 들고 있다가 왼손으로 짐을 옮겨드는 경우에 '짐을 왼손으로 갈마쥬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있던 것을 놓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쥬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가에서 꺼내 보던 책을 놓고 다른 책으로 바꾸어서 드는 것을 가리켜서 '갈마쥬다'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갈마'라는 말은 먼저 것 대신에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의 동사인 '갈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있던 것을 놓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쥬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가에서 꺼내 보던 책을 놓고 다른 책으로 바꾸어서 드는 것을 가리켜서 '갈마쥬다'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갈마'라는 말은 먼저 것 대신에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의 동사인 '갈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9. 학생이 되어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감
10. 금을 캐내는 광산
12. 집안 살림에 쓰는 기구. 주로 장롱·책장·탁자 따위와 같이 비교적 큰 재품을 이른다.
13.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쥘 손
14. 갓 결혼했거나 결혼하는 남자
15. 국수, 새끼,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문치
17. 날이 예리하고 짧은 칼
19.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킴
20. 원동기를 장치해 그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철길이 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땅 위를 움직이도록 만든 차
22. 푸대접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함
24. 백성의 마음
25.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 보다 위쪽에 더 벌어졌다.
12.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보다는 좀 굵다.
15. 딸의 남편을 이르는 말
16.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일
18.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로 열매는 크고 둥글며 여름에 많이 먹는다. 열매의 속살은 붉고 달다.
19. 몸의 길이가 2미터 정도인 고양이과의 포유류. 등은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꼬리는 길고 검은 줄무늬가 있다. 시베리아 남부에서 인도, 자바 등지에 분포한다.
20.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
21.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23.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

▶ 오른쪽 방향 열쇠

1. 김 위에 밥을 펴 놓고 여러 가지 반찬으로 소를 박아 돌돌 말아 싸서 썰어 먹는 음식
3. 여성 독립운동가(1902~20). 18세 때 이화학당 고등과 1년생으로 3·1 만세운동에 참가한 뒤,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아우내 장날을 기해 만세를 삼창하며 시위하다 왜경에 체포된 후 옥중에서 순국했다.
5. 밀가루·메밀가루·감자 가루 따위를 반죽한 다음, 반죽을 손이나 기계 따위로 가늘고 길게 뽑아낸 식품. 또는 그것을 삶아 만든 음식
7. 고래를 잡기 위해 특별한 설비를 갖춘 배

▶ 아래쪽 방향 열쇠

1. 김치를 넣어 끓인 국
2. 결혼식 때에 신부가 머리에 써서 뒤로 늘이는, 흰 사(紗)로 만든 장식품
3. 유조 시설을 갖추고 석유를 운반하는 배
4.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고생하며 배움
6. 받을 돈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런 돈
8.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인사하는 일
9. 들어가는 통로
11. 대, 사리, 버들 따위를 재료로 해 바닥은 둥글고 촘촘하게, 전은 성기게 엮어 만든 그릇. 일반적으로 바닥

▶ 8월호 정답

고추장	명	광복절
래	이태백	
등화관제	수수방관	
랑	마부	앗
식도락	마이간질	
객	전번	투
	만화	개평
농	기초	행유
구름	밥	봉숭아

고유의 입맛 살린 전통의 맛 병천 순대

영양 많고 저렴한 서민 음식



불고기, 비빔밥, 삼계탕 외에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돼지 창자를 쓴 전통 순대 정도면 국가대표 음식 상비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모양이나 맛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한국 대표 음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우리 고유의 순대를 말함이다. 충남 천안시 병천면은 그 제대로 된 순대를 맛볼 수 있는 명소다.

병천은 일제강점기 호서 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 현장이다. 유관순 열사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아우내장터가 바로 병천에 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병천은 순대로 이름난 고장이 됐다. 현재, 병천면 내에는 30여 곳의 순대 전문 식당이 영업 중이다. 청화집, 충남집 등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부터 최근의 명성을 발판으로 등장한 신생 업소까지 제각기 고유한 맛을 선보인다. TV 음식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한두 번 소개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병천 순대 맛의 비밀은 재료에 있다. 신선한 돼지 소창을 깨끗하게 손질해 10여 가지 재료로 속을 꽉 채운다. 돼지 뼈를 푹 고아 기름을 싹 걷어낸 국물이 순대와 어우러져 병천 순대 특유의 깔끔한 감칠맛을 낸다.



흑성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천안 독립기념관

병천에 순대 전문 식당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다. 햄 공장이 병천에 들어서면서 돼지고기 부산물을 활용한 식당들이 덩달아 생겨났다. 순대 식당도 그중 하나였다. 먹을거리가 귀한 시절에 값싸고 영양 많은 순대는 서민층에게 환영받는 음식이었다. 병천에 장이 서는 날이면 순대국밥을 먹으려는 이들로 순대국밥 식당 앞은 장사진을 이뤘다고 한다.

30여 년간 10개 안팎이었던 병천의 순대 식당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하게 된다. 불황으로 저렴한 푸짐

한 음식이 각광받으면서 전국에 순대 프랜차이즈가 등장한 것이 계기였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전통 순대를 맛본 이들이 순대 맛의 본향으로 소문난 병천을 찾게 되면서 순대 거리가 조성된다.

신선한 돼지 소창을 이용해 부드러운 맛

병천 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신선한 돼지 소창(작은창자)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대창(큰창자)을 쓰는 다른 지역 순대에 비해 부드럽게 씹히고 누린내가 적은 편이다. 소창 속에 들어가는 재료는 고기불이와 두부를 비롯해 각종 채소다. 아우내먹거리순대의 경우에 찹쌀, 당면, 선지, 양배추, 양파 등 16가지 재료로 창자를 채운다. 이를 맹물에 살짝 삶은 후 냉장 시설에서 하루 이상 숙성시킨다. 그렇게 각 재료의 맛이 혼연일체가 된 순대를 뚝배기에 담아 펄펄 끓는 육수를 부으면 순대국밥 한 그릇이 탄생한다. 육수는 돼지 뼈에 생강, 오가피, 소주 등을 넣고 여러 시간 푹 고아 우려내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낸다.

병천 순대 거리는 천안삼거리, 유관순 열사 사적지 등과 함께 천안을 대표하는 명소인 '천안 12경'에 올라 있다. 천안시는 병천 순대 거리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몇 년 전 순대 거리

의 넓은 간판 100여 개를 새것으로 만들어 달아주었다. 또 지난해에는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4천996㎡ 터에 대형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천안시의 노력에 입소문이 더해져 병천 순대 거리를 찾는 발길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휴일이면 이른 몇몇 식당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연매출 10억 원을 웃도는 식당도 이미 여러 곳 등장했다. 10억 원은 1인분에 5천 원인 순대국밥 20만 그릇에 해당하는 액수다. 순대 거리 전체로 확대해 얼추 따져보면 병천에 와 순대국밥을 먹는 이가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그중에는 한국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해(四海) 서민의 허기와 시름을 달래는 순대의 역할은 변함이 없다. **[창]**



Tip

▶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 도심 동쪽 흑성산 자락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은 지난 5천 년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집대성된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펼쳐진 항일 활동을 전시물과 영상, 재현 모형 등을 통해 엿보고 독립운동가들을 시간의 벽을 넘어 만날 수 있다.

•문의 : 독립기념관 041-560-0352, www.i815.or.kr



▶ 천안 여행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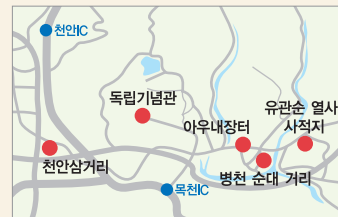
• 당일 여행 코스

천안삼거리 → 독립기념관 → 유관순 열사 사적지 → 아우내장터 →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 병천 순대 거리

•천안 시티 투어 : 041-521-2038(천안시 관광안내소), 041-521-5158~9(천안시 문화관광과)

•대중교통 : 천안종합터미널이나 천안역에서 400번대 버스로 30~40분이면 독립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아우내장터 등을 돌아볼 수 있다.

•식당 정보 : 아우내먹거리순대 041-564-2544



“‘한상&청년, Go Together!’ 참가 신청하세요”

재외동포재단은 ‘제14차 세계한상대회’의 3일차인 10월 15일에 진행되는 ‘한상&청년, Go Together!’에 참가할 청년을 모집한다.

재단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년들이 100초 스피치와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자신을 어필하게 되며, 행사에 참여한 전 세계 한상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게 된다.

재단은 맨손으로 도전해 주류 사회에 우뚝 선 한상의 성공



노하우 전수 기회와 해외 취업 관련 외부 강사의 특강도 마련했다.

세계한상대회는 각국의 한민족 경제인이 고국에 모여 경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대회를 오는 10월 13~15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200여 개 기관과 기업을 선발해 기업 전시회를 연다.

참가 문의는 세계한상대회 사무국(02-3415-0152)으로 하면 된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50th
ANNIVERSARY

남미한인이주 반세기 기념

가래야노!
태양이 오르나

2015
Korean
festival

10.5(일) PM 7:30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주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